

미국의 역대 행정부에는 대통령의 측근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던 국방분야의 「모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헨리 키신저와 같이 역사속에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시대에는 강경한 반소입장과 핵저지를 위한 굳은 신념을 높이 평가받았던 Richard Perlecol 있었다. 그리고 Robert McFarlane은 그의 상관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제 조지 부시 행정부 시대에는 대통령이 경청할 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사람이 누구인가?

의회내에서는 각기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Sam Nunn 상원의원과 Les Aspin 하원의원을 들수 있다. 이들은 전략과 비용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키신저 밑에서 부장관을 지냈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의장 Brent Scowcroft는 대통령의 핵저지 정책을 위한 연구 책임자로 있다.

키신저는 私人으로서 아직도 군사문제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다. Paul Nitze와 Max Kampelman은 군비통제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前주NATO 미대사 David Abshire와 전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Zbigniew Brezinski는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냈던 물리학자 Harold Brown을 들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에게 제공될 조언과 그가 내릴 결정을 이해하는 핵심요소이다. 실례로 이들은 대서양주의자들로서 NATO를 통한 미국과 서유럽간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하나의 군사력으로 결속하여야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극동지역에 우선하여 장기간의 정치적 결속을 다져야 한-

다는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도 이를 실현시켜줄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일부는 유럽의 NATO 회원국들이 연간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의 제고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방위비 분담이 그들의 정치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결국 NATO의 결속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외에도 Abshire는 NATO와 전유럽의 군사 표준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Brezinski는 서유럽이 중동지역을 포함한 군사비상사태에 미국과 유럽의 대응기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Nunn 상원의원은 효과적인 미·유럽 방산협력이 NATO에 대한 미국과 서유럽의 기여도에 균형을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예산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시켜야하는 미국은 전략분야에서 모든것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제 무기체계의 가격과 배치일정을 고려치 않을수 없게 되었다. Scowcroft, Brown 및 McFarlane은 MIDGETMAN 이동식 미사일과 B-2 스텔스 폭격기가 배치될때까지 MX미사일의 배치를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Nunn과 Aspin은 각 무기체계의 배치일정을 연기함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3가지 무기체계를 동시에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의회가 국방성의 예산지출자금을 검토, 책정, 승인하고 점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Nunn의원은 「의회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밖에 국방성이 조달방법을 쇄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최고위 군사전문가들 간에는 1992년에 이루어질 유럽경제공동체(EEC)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제 미국이 EEC가 방위기술 및 무기판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일부 그룹은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연합하여 미국업체들을 시장에서 밀어낼 것이라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유럽내에서 자체 경쟁 때문에 유수한 몇몇 유럽업체들이 기술증대와 세계시장에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업체와 합당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간의 방산협력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유럽의



외로운 아빠 ?

어떤 중년 남자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래, 자네 부인께서도 안녕하신가?』

『물론 안녕하지. 요즘은 그 뭐래나… 철로라던가 그것에 빠져 연습에 한창이지.』

『큰 딸애는 바이얼린, 둘째는 비올라… 집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을 정도라네.』

『와, 그거 정말 멋진일이군. 역시 자네 부인은 音大를 나와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서야 이루려는 모양이군.』

『자네까지 낀다면 멋진 현악 4중주가 되겠는데?』

『그래 자네는 무슨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음, 그건 참고 견디는 연습이야.』

국방장관들과 함께 국방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전문가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각 군사전문가들로부터 장점을 취하면서 그들과 얼마간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가 문제점들을 선정하여 적절한 우선순위를 책정하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선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히 일부 국방관계 인사들은 유럽연합군의 총사령관인 미 육군의 John Galvin 대장이 서방세계에서 가장 실망을 안겨주는 사령관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의 방위 준비 상태와 즉각적인 대응력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침공시에 10개 전투사단을 유럽에 파견할 만한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전쟁발발시 유럽의 방위산업 기반을 보충해줄 미국의 방산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또한 소련은 점차 고도병기로 무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3가지 문제점들은 미국의 취약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시는 미국인들에게 정직하고 단순하면서 노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응태세가 갖추어진 군대, 속적으로 우세한 적군을 격파할 수 있는 군사고도기술의 우위확보등이 없이는 유럽방위를 위한 막대한 투자와 2천9백억불에 달하는 국방비 지출이 NATO에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국내의 산업기반과 연구개발 문제를 잘 융합시키는데 전념하여야 하며 물론 이것은 의회가 주장하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극)

〈MILTECH 89/2〉